

광주시, 을지연습 앞두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 대비 태세 점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오후 2시 시청 총무실에서 '2022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2~25일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기관별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개최됐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무장 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최순건31사단장, 임용환 광주광역시경찰청장, 류진산 1전투비행단장, 신용해 광주교정청장, 임상빈 검찰청 형사3부장, 국경원광주지부,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기관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2 을지연습 홍보 동영상 시

청 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의 북한 사이버 위협 동향 ▲광주시의 2022년도 을지연습 추진계획 ▲31보병사단의 통합방위 발전방안 ▲광주·전남혈액원의 비상시 혈액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력방안 등에 대한 기관별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전시전환 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을중 사태 선포'를 안건으로 상정해 토의·심의했다. '통합방위 을중 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와 지역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구분 중 하나다. '을중' 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 적이 침투·도발해 단기간 내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

관 지휘 아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기정 시장은 "최고의 안보는 훈련으로, 훈련보다 큰 예방은 없다"며 "정확한 정보 파악, 빠른 판단, 강력한 대응의 3단계를 바탕으로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의 민·관·군·경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 하고 지역의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을지연습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유빈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지하 1층 총무실에서 열린 '2022년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해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최순건 제31보병사단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100개로 늘린다"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지정 추진한 유기농 생태마을을 오는 2026년까지 100개소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유기농생태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생태마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친화적 마을이다. 전남도는 농업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유기농업 마을의 성공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에 시작했다. 특히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제1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유기농 생태마을을 오는 2026년까지 100개소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에는 올해 상반기 지정

된 곡성 연봉마을, 해남 태인마을 등 신규 4개소를 포함해 총 38개 유기농 생태마을이 관리되고 있다. 지정 신청요건은 농작물별로 차이가 있다. 벼 농가는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수 및 채소 농가는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 1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바라는 마을은 24일까지 시군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9월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유기농생태마을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되면 '2023년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증대에 기여한 마을이다. 유기농업 확대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 최대 5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 교육, 마을 가꾸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비로 마을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마을 주민이 합심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업 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지속해 발굴,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유기농 생태마을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도농 공동체를 실천하는 농촌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현대차그룹,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분야 국제표준기구(ISO)로부터 동시 인증 취득

현대자동차그룹 4개사가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췄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공급망을 구성하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터, 총 4개 그룹사의 협업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표준인증(ISO/IEC 5230)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오픈소스를 활용할 경우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분쟁 및 보안 취약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나 개인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수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국제표준 인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부품 패키징, 양산으로 이어지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터 4개사가 협력해 동시에 취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오픈소스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채택한 유일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5230'은 ▲오픈소스 정책과 프로세스 수립의 적정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여부 ▲개발자 교육·평가 등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여부

를 평가한다. 현대차그룹은 오픈소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용자가 저작권 분쟁 및 보안 취약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해당 관리 체계 및 지원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현대차그룹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이달 말 종합 포털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사용자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오픈소스 생태계의 확장 및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 김용화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그룹을 넘어 자동차 산업 공급망 전체의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과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단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약금(GC)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명사계, 외장재, 창호형태, 외장재 및 마감, 포장재, 시공 등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디자인입니다.